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데 도움되길”

자녀교육 도서 출간 이영주 영암군 예산팀장

100일간 자녀들과 운동하며 일상생활 등 일기로 담아 자존감 키워주기에 주목...가족간 편지도 엮어내고파

“많은 분들이 한 가정의 소중한 이야기와 사랑을 담은 ‘미션임파서블-자녀 자존감 키워주기 100일 미션’ 도서를 통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현재 공무원이 자녀교육 도서를 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영암군청 이영주 예산팀장.

이 팀장은 평소 군청 내에서도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빠로 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수준급인 글쓰기 실력으로 ‘영암군 독후감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제목처럼 100일간 자녀들과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나는 대화, 감정들을 일기로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서를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 수줍어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팀장은 “공무원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라며 처음에는 책을 만들 거란 생각조차 못했다”며 “부족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 보다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책을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며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자생존’의 자제가 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다”며 “몇 년 전부터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단순히 소장용으로 간직하고 싶었다”며 “집 사람과 자녀들이 응원해 준 덕분에 용기가 생겨 책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고마운 사람을 떠올렸다. 그는 “우연치 않게 한국 문인협회 영암지부 조세란 전 회장이 내 글을 보더니 칭찬을 해주면서 출판사를 안내해줬다”며 “본인 일처럼 교열, 오탈자 등 수시로 확인해줬고 도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이 팀장은 제2의 도서에 대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며 “어떤 단어와 상황 등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써 놓은 글을 저만의 ‘개성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담아내고 싶다”고 미소지었다.

끝으로 그는 “많은 분들이 한 가정의 소중한 이야기와 사랑을 담은 ‘미션임파서블-자녀 자존감 키워주기 100일 미션’ 도서를 통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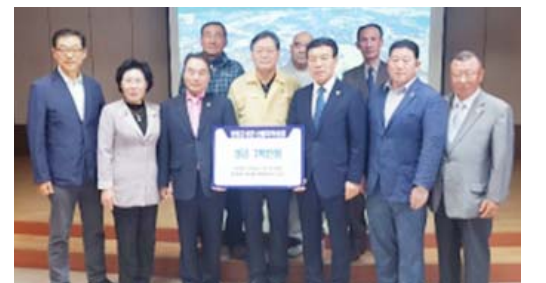
광주대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동참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이웃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봉사활동에 나섰다.

광주대 직원노동조합과 학생들로 구성된 20명의 자원봉사대가 최근 남구 푸른길 광장 일원에서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자원봉사대는 배식과 설거지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했다.

광주대 정상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올 한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한국수사랑총연합회, 산불 성금 전달

대한민국수사랑총연합회 이송암 총재와 지역총재 등 임원들은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을 위해 고성군 토성면 현지 상황실에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은성기자



광주매일신문-경남매일 '상생발전' 업무협약

광주매일신문과 경남매일은 지난 17일 광주매일신문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대표이사와 경남매일 정창훈 대표이사 및 양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양 신문사는 기획기사 등 콘텐츠 공동제작 및 공유와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신문사는 보유하고

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문 제작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을 상호교환하며, 기획 기사 등을 위한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동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사는 본격적인 영호남 언론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지역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송지기자



아모레퍼시픽 '2019 핑크런 광주대회' 성황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2019 핑크런 광주대회'가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19번째 이어지는 핑크런은 아모레퍼시픽이 진행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행사로, 유방 건강에 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5개 도시(부산-대전-광주-대구-서울)에서 릴레이로 개최된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와 검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광주대회는 생활 속 유방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전파하는 '핑크 세리머니'에 이어 스트레칭, 10km와 3km 참가자 출발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3km 코스는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스티커, 핑크 징검다리 존 등 다양한 유방암 예방 정보를 알리는 참여형 실천 코스로 구성돼 관심을 끌었다.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부스에서 유방암 무료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핑크리본 실천 놀이터'에

서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을 서약하기도 했다. 이외에 '핑크스토어', '핑크 럭키 박스'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기부할 수 있는 이벤트와 헤라를 비롯해 여러 협찬사에서 마련한 부스에도 참가자가 북적였다.

한국유방건강재단 노동영 이사장은 “유방암은 매일 생리가 끝난 3일 후 3개의 손가락을 펴고 3개의 원을 그리는 방식의 손순서 자가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이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다”며 “생활 속에서 정기적인 유방 자가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인 핑크런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34만 7천여명이 참가했으며, 행사를 통해 발생한 3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임후성기자



월곡지구대·운남자율방범대 합동순찰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대장 김기영)는 최근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된 운남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주민요청 탄력순찰지 및 외국인 범죄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대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함께 주민 치안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21세기남도포럼, 제213회 정례포럼 성황

제21세기남도포럼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서구 라페스타 연회장에서 박석민 코레일광주본부 영업처장을 초청, 제213회 정례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남도포럼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박 처장은 '철도관광의 이해 및 경전선 관광철도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철도관광의 필요성과 성공사례, 그리고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자세하게 제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1983년 철도청에 들어가서 36년째 철도인으로 살아온 박 처장은 그동안 정동진 역장, 목포역장, 해양관광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며 철도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기획, 실행하면서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처장은 특히 90년의 역사를 지닌 경전선 철도의 매력을 강조하며 “각 역의 특징을 살린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상품화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철현기자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 청소년 문화탐방고교실 호응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회장 정혜선)는 최근 청소년 문화탐방고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청소년 문화탐방은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 목포시 관내 중학교 2학년생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해 운영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목포 관내 근대역사관 1·2관, 근대역사거리, 자연사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을 돌면서 관광해설사의 문화해설을 들으며 내 고장 문화를 깊게 아는 계기를 가졌다.

행사는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 문화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주변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번 청소년 문화탐방이 우리 고장 역사와 문화를 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날 문화탐방으로 알게 된 지식을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청소년 문화탐방을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친구교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체험교실, 다문화가족 감장담그기 등 여러 행사들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손일갑기자

소년들에게 내 고장 문화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주변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번 청소년 문화탐방이 우리 고장 역사와 문화를 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날 문화탐방으로 알게 된 지식을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청소년 문화탐방을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친구교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체험교실, 다문화가족 감장담그기 등 여러 행사들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손일갑기자



영광교육청, 마을학교 선진지 연찬회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지난 17-18일 영광 마을학교 운영자, 지역사회 활동가, 학교업무담당자 등 25여명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선진지 연찬회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 용인의 포곡중학교를 방문해 포곡읍 마을교육복지협의체 김규업 사무국장으로부터 마을협의체 구성 단계,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마을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했다.

다음으로 용인의 꿈꾸는 도자예술가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영일 교장으로부터 실제 운영과정 및 사례 등을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주대동고총동창회,故 전영진 열사 39주기 추모식

광주대동고 총동창회(회장 박정인)는 지난 16일 매월동 교정에 자리잡은 故 전영진 열사 추모비에서 열사의 부친인 전개량씨, 총동창회 주요 임원, 전 열사의 학창시절 동기인 6회 김철호씨를 비롯한 친구들, 정철원 교장과 김태중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학생회가 참여한 가운데 추모식을 개최했다.

전 열사는 대동고 3학년 재학 당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에게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라고 말하곤 급남로 시위대로 나섰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지방노동청앞에서 계엄군이 조준한 총상을 입고 기록병원에서 사망했다.

특히 학창시절 절친으로 알려진 송영길 국회의원과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 등에 따르면 “영진이는 학창시절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친구였다”고 기억하며 추모했다. /김종민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삼림별세 호공, 정정채, 선채, 선대, 성대, 경자씨 모친상=발인:20일(월) 오전7시, 장지:나주다도면선영(화) 연락처:신관2층VIP예궁(250-4470)

▲오금곡별세 최운선, 기중, 기념, 김례씨 모친상=발인:20일(월) 오전8시, 장지:담양공원묘지(매) 연락처:본관3층10호(250-4410)

그린장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

결혼

●성경호·강해순씨 장남 재현군, 윤철용·김길남씨 장녀 희진양=25일(토) 오후 1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강용근·이미숙씨 장남 홍선군, 김정수·최복례씨 차녀 연주양=26일(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부음

●오금곡씨 별세, 최기남(광주전남사친기자협회회장)씨 모친상=발인 20일(월) 오전 8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062-250-4410)